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1장 공중의 새와 꽃들

『산상설교』 하권 제41장, 인쇄 144~15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25~30

> ❓ 먹고 살 걱정, 입을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챙기신다고 믿어도 될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세상이 사람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매달려 살도록 몰아간다고 진단하면서 설교를 시작한다. 이어서 주님이 이 염려를 두 면으로 나누어 다루신다고 본다. 첫째 면은 생명 유지(26~27절)이고, 둘째 면은 몸과 의복(28~30절)이다. 생명 유지에 대해서는 두 논증이 나온다. 하나는 공중의 새에서 끌어낸 논증이다. 새를 일반섭리로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인은 새보다 훨씬 귀하다. 다른 하나는 염려해도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다는 염려의 무익함이다. 의복에 대해서는 들의 백합화에서 같은 논법을 더 강하게 펼친다. 하루 피었다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이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영원에 속한 사람의 몸을 그분이 소홀히 하실 리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절별 정리

📜 1. 먹고 마시고 입는 차원에 갇힌 세상

로이드 존스는 많은 사람이 음식과 음료와 옷을 삶의 전부처럼 여기며 산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시간 대부분을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책과 잡지로 읽는 데 쓴다. 서가의 책들만 훑어봐도 세상이 이 기호에

면을 따로 다루신다. 첫째 면은 26~27절의 생존과 생명 유지 문제다. 로이드 존스는 27절을 다음 대목(의복)에 붙이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뒤에 밝힐 이유로 27절은 첫째 대목에 속한다고 못 박는다.

1. 세상은 먹고 입는 차원에서만 살게 몰아간다
2. 25절은 염려를 피할 총괄 이유다
3. 첫째 면은 생명 유지(26~27절)다
4. 둘째 면은 몸과 의복(28~30절)이다
5. 27절은 첫째 대목에 속한다

> **마태복음 6:25**
> 목숨과 몸에 대한 염려를 금하는 총괄 명령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26~27**
> 생명 유지 문제를 다루는 첫째 대목
>
>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2. 새는 직접 받고, 사람은 씨를 뿌린다

주님은 먼저 눈앞의 자연 한 장면을 보여 주신다. 여기서 '보라'는 특별히 강렬하게 응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는 뜻이다. 로이드 존스는 새와 사람이 먹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짚는다. 새는 먹이를 직접 공급받는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거두고, 곳간에 쌓아 두는 과정을 거친다. 이 방식은 타락 이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창세기 3:19).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만히

생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사람은 씨를 뿌려야 한다. 다만 날씨를 걱정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수확을 늘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1. '보라'는 그저 눈앞을 보라는 뜻이다
2. 새는 직접 받고 사람은 과정을 거친다
3. 노동은 타락 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4. 가만히 기적을 기다리는 건 믿음 아니다
5. 일하되 결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긴다

> **창세기 3:19**
> 땀 흘려 일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임을 보여 줌
>
>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6:26**
>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사실 제시
>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3. 첫째 추론: 새를 기르시는 분이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

로이드 존스는 26절에서 미묘한 전환을 찾아낸다. 하나님은 새들을 '일반섭리'로만 다루신다. 일반섭리란 창조주가 온 세상을 보존하고 돌보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들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일반섭리로만 관계된 새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자녀는 얼마나 더 돌보시겠는가. 땅의 아버지도 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기 자식을 굶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보며 “이것은 저절로, 많은 현대 과학자들 말처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마태복음 5:45),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로마서 8:15). 그래서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된다.

1. 새는 일반섭리로만 돌보심을 받는다
2. 하나님은 새의 아버지가 아니다
3.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시다
4. 이 위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한다
5. 아버지 둔 자의 염려는 죄가 된다

> **마태복음 6:26**
>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 창조주에서 아버지로의 전환
>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5:45**
>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일반섭리를 보여 줌
>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로마서 8:15**
>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름
>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 4. 둘째 추론: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증이다. 이 논증의 근거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대함과 품위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성경의 인간론을 짧게 다룬다. 세상은 성경이 인간을 천대하고 깎아내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성경의 인간관이 약해질수록 사람의 참된 위대함도 사라진다. 세속적 자연주의 인간관은 사람을 하찮게 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바로 거기에 존엄이 있다. 참된 인간관을 찾으려면 시편 8편으로 가야 한다. 무엇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약의 인간상을 보아야 한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마태복음 10:29).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여겨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 염려는 멈출 수밖에 없다.

1.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논증이다
2. 성경은 인간을 비하하지 않는다
3. 세속 자연주의가 오히려 인간을 낮춘다
4. 존엄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 참 인간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인다

마태복음 6:26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사람의 존엄에서 끌어낸 논증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시편 8:5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운 사람 — 참된 인간관의 출처

>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마태복음 10:29

참새 하나도 아버지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음 — 작은 것도 돌보심

>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5. 염려는 수명을 한 순간도 늘리지 못한다(27절)

두 번째 주된 논증은 염려의 무익함이다. 먼저 '키'의 뜻을 정해야 한다. 이 헬라어 낱말은 고전에서나 성경에서나 '신장'과 '생명의 길이' 두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결정은 문맥이 한다. 한 '자'는 18인치(약 45cm)다. 주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논증하고 계시는데, 키를 18인치나 늘리려고 걱정하는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대목은 몸이 아니라 목숨의 존속을 다룬다. 따라서 '키'는 수명을 뜻하고, 27절은 첫째 대목에 속한다. 결론은 분명하다. 아무도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 백만장자도 이 점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의학으로도 안 된다. 같은 상태의 두 환자가 같은 치료를 받아도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죽는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큰 일을 그분이 맡고 계신다면 더 작은 일도 맡길 수 있다. 가장 좋은 씨와 써레를 사도, 하나님이 해와 비를 거두시면 한 톨도 거둘 수 없다. 사람에게는 할 일이 있지만 증식은 하나님 손에 있다.

1. '키'는 헬라어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2. 문맥상 '키'는 수명을 뜻한다
3. 돈도 의학도 생명을 늘리지 못한다
4.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5. 큰 일을 맡기면 작은 일도 맡길 수 있다

> **마태복음 6:27**
> 염려로 수명을 늘릴 수 없다는 무익함의 논증
>
>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마태복음 6:25**
> “목숨을 위하여” — 이 대목이 생존 문제임을 보여 주는 문맥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큰 문제가 그의 관리 하에 있다면 이보다 덜한 것들을 그에게 일임할 수 있다."

📜 6. 들의 백합화: 하루살이 풀도 입히시는데

둘째 면은 몸과 의복이다. 이번에도 논증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더 강한 말을 쓰신다. 새는 "보라"였는데 백합화는 "생각하여 보라", 곧 깊이 묵상하라고 하신다. 학자들은 '백합화'가 무슨 꽃인지 정하려고 지면을 많이 쓰지만, 로이드 존스는 팔레스타인 들에 흔한 풀꽃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 꽃은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 사이에 속담처럼 전해지던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 하나만 못했다. 솔로몬의 옷과 금 입힌 가구, 백향목 궁전도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꽃의 형태와 색에 비하면 빛을 잃는다. 로이드 존스는 "가장 비천한 꽃도… 깊은 사상을 준다"는 시구를 인용하며, 주님이 꽃에서 하나님의 손과 완전한 창조를 보셨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풀을 베어 말린 뒤 아궁이에 넣어 빵 굽는 연료로 썼다. 그만큼 덧없는 풀이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뿐 아니라 영원에 속한 불멸의 존재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은 영혼에 대한 말이 아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몸을 소홀히 하실 리 없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신다.

1. "생각하여 보라"는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다
2. 솔로몬의 영광도 들꽃 하나만 못하다
3. 들풀은 하루 있다 아궁이로 간다
4. 사람은 영원에 속한 존재다
5. 하나님은 우리 몸을 소홀히 않으신다

> **마태복음 6:28~29**
> 수고 없이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혀진 백합화
>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30

덧없는 풀과 사람의 대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창세기 3:19

“흙으로 돌아가리라” — 영혼에 대한 말이 아님을 밝힘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시간의 피조물일 뿐 아니라 영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염려

이 세상일, 특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하며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일반섭리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을 보존하고 먹이시는 돌보심.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하물며 논법)

“작은 것도 이렇게 하신다면 큰 것은 더 그러하다”는 식의 논증.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를 닮게 지어졌다는 것이며, 인간 존엄의 근거다.

세속적 자연주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자연과 우연으로만 설명하는 세계관.

자(규빗)
성경의 길이 단위로, 로이드 존스는 18인치(약 45cm)로 설명한다.

작은 믿음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기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일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다.
- 새를 일반섭리로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 아버지시다. 그래서 자녀의 염려는 죄가 된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의 존엄을 지닌 사람은 새보다 훨씬 귀하다.
- 염려로는 수명을 한순간도 늘릴 수 없다. 생명을 쥐신 분께 작은 일도 맡길 수 있다.
- 하루살이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영원에 속한 우리의 몸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